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AI 순환경제' 인재 양성 본격화 13개 공공·연구기관 참여 특강·취업상담회, 졸업생 100여 명 함께한 학과 총동문회도 '활기'

- 7월 4일(금), 'AI 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학제전공' 신설 기념해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함께 진로 연계 행사 개최... 환경·에너지공학과 총동문회도 열려 세대 잇는 교류의 장 펼쳐져
- 박영준 학과장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 산학연 협력 통한 지속 발전 기대"



▲ 7월 4일(금)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가 동문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난 7월 4일(금) 오룡관에서 'AI 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학제전공'의 출범을 기념해 산학협력 기반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 초청 특강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신설된 AI 기술과 순환경제 개념을 융합한 학제전공의 취지를 소개하고,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가 7월 4일(금) 오통관에서 'AI 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학제전공'의 출범을 기념해 산학협력 기반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 초청 특강 및 취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주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13곳이 참여했으며, 130여 명의 GIST 재학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AI 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학제전공'의 신설 배경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박호식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이 'R&D 추진 방향', ▲손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이 'AI 및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 자원회수 기술 개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미래 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과 전망을 공유했다.

특강 이후에는 기관별 취업 부스가 운영되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직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 기관별 취업 부스를 찾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직무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환경·에너지공학과 총동문회에는 100여 명의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 재학생들과 교류했다.

동문회는 재학생 대상 진로 멘토링, 취업 조언, 연구 협력 방안 논의 등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구성원 간 유대를 다지고 학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박영준 환경·에너지공학과장은 "AI 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학제전공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커리큘럼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그 출발점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